

◀(창)◀(간)◀(사)▶ 구태여 삼장한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제약 때문에 지극 지극을 함께 하는 서로를 익힐 수 있는 우리들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매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특정한 목적과 공리를 따지지 않고 서로의 폭넓은 깊은 이해와 사침은 그 지체없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것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모습의 일단을 극히 단편적이거나 기록해 남기는 것도 뜻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미비한 지극히 초라한 출발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롭게 기대합니다.

本紙가 무비하고 각박한 異國生活에서 한기탁 위대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친한 벗으로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위롭고 활기있는 대화의 도를 위 명장으로써 끊임 없이 발전 할 수 있기를 希求하여 미지 불공이다 (회장 유현)

위성헌주 한국학생회  
**이 학생회보**  
 제1호 SMITH HALL RM31, UofW, 1973년 1월

**아시아 학생을 위한 장학금** : 위성헌 대학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에서는 한국·일본 및 중국 유학생들에게 지급하는 Statira Biggs Scholarship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상 : UofW의 fulltime으로 등록한 학생으로 재정도움이 필요한 학생  
 장학금액 : 200불 내지 500불  
 신청 마감 : 1973년 1월 15일  
 신청 접수처 :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Phone: 543-0840)

대여 장학금 : 학생회 대여 장학금 (150불 한도 3개월 무이자 상환) 신청하실분은 학생회장 (632-1989)이나 이양림씨 (633-1184)에게 연락하십시오. 바랍니다.

韓人會總會 盛了 시아를 한인회는 지난 12월 2일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役員을 改選 하였습니다.

회 장	한 만 습	재 무	오 준 준
부 회 장	김 철 길	집 회	안 병 영
총 무	김 성 길		

# 이 소식 저 소식

- 이기린 형 ... 12월 29일을 기해 드디어  
몽매에도 그리던 약혼자와 재상봉.  
결혼식은 1월중에 거행 예정.
- 윤승영 형 ... 방학을 이용하여 등부에 여  
행중. 씨애를 친지여러분 성탄에 복  
많이 받으시라는 소식을 전하음.
- 왕한철 형 ... 6401 Roosevelt Way 에  
문을 연 태권도장 목하 성업중.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 있음 (Tel: 524-5860)
- 이영재 형 ... 박사논문 작성중 장인상  
을 당하였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이익화 형 ... 부인 박귀희씨께서 형설  
의 보람이 있어 Minnesota 대학으로 부터  
식품생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가.
- 장신재 형 ... 불의의 교통사고로 약 1개  
월간 입원중이던 장형, 경과가 호전되  
어 퇴원 자택 가료중 (Tel: EAR-1132)
- 조대성 형 ... 지난말에 부인과 꼬마 아들  
이 도착하여 1년만에 가족 재결합.  
새 보금자리, 3712 12th NE (Tel: 634  
- 2957) 로 이사.
- 정도영 형 ... 미남 정도영 건축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월 초순 New York  
으로 떠날 예정.
- 한기인 형 ... 원자력과 석사 과정을 마치  
고 박사과정 준비중 이상없음.
- 최재완 형 ... 정치학과이 급년도 신입생의  
최형은 동아일보 본사 통신원으로서 외  
생환의 고통이나 교토사회 빈번의 소식 등  
기사 제공을 바라고 있음.  
연락처: # 615 McMahon Hall, UW.  
Tel: 543-7619.

- 이정복 형 ... 일본에 박사논문 자료수집차  
체류중인 이형의 주소는, 3-2-23,  
Takaido Higashi, Suginamiku, Tokyo,  
Japan.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는 동안  
전하며 음.
- 반재현 형 ... Princeton 에서 연구중이신 변형  
주소는 58N Stanworth Dr. Princeton,  
N. J. 08540. 6월말에 씨애들로 들  
아 오신다고.

## 아마추어 詩選

### 보 고 품

머리위에 네발을 딛고 섰때  
설레설레 흔들다가  
이내 보고 품으로 나는 메이고 만다.  
지쳐 버린 힘. 당연하기만 한 마음.  
그러나 후회하고 싶지 않은 ...  
이 모두가 보고 품에 기여히 목을 느리고 있다.  
북풍에 유희고 있다.

몹시 추움.  
어떤 묘한 목적이 들어났을때 ...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만연한 야기 같은 보고 품에  
나는 메여서 헤어 나갈 못하고  
눈을 베우는 작은 새가 된다.

후련함  
다시 우눈이 반짝거리며  
내발을 잡아보는  
내손끝은 돌아 볼 옛 보고 품에  
한 마음의 행이 안쳐지고 있다.  
진정 보고 품에 ...

최 경 숙

# 한국일보

신속한 한국소식과  
미국내의 교포소식을  
원하십니까?

## 한국일보

씨애를 지사로 신청  
하십시오.

Phone: 522-9904.



## 고전적인 의미의 정치

### 이 익 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에는 흔히 쓰여지는 만큼 뜻이 명확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라는 말도 그걸 종류의 하나인 듯 싶다.

통제 내기를 즐기는 어느 미국 학자가 이천여년 전 플라톤 시어부터 이듬 같은 학자, 정치가들이 제각각 다른 다르게 처했던 정치를 말의 뜻을 모아 본 적이 있는데 수자가 자그마치 150개나 넘는 정도였다. 물론 시대적 환경에 따라, 말하는 이의 입장에 따라 뜻이 갈라지고 또 갈라진 결과 일 것이다.

수자가 그렇게 많은 그 개념들을 분류하는 방법도 많고 복잡하겠지만 쉽게 보자면 아주 간단하게 두가지로 대별해서 볼 수도 있다. 즉 정치라는 현상을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이다.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이의 입장에서 보느냐 또는 다스림을 받는 입장, 즉 "나의 생활"을 통해서 보느냐 하는데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정치를 위에서 보면 한문자가 말해주듯 "다스리는 것"이 되고 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았던 개념들은 이 부류에 속한다. 정치가들이야 양상이 그러하니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객관적인 것을 내세우는 학자들의 경우도 말하는 것을 살펴 보면 결국은 정치란 다스리는 일 뿐이다.

하키야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하는 얘기도 흔히 그렇다. 극미 주권자라는 얘기는 말년에 한번씩 키에 굳은 살이 백이도록 들고 사람 뽑는 일을 연중 행사처럼 하는 지내지만 결국은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생활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정치란 전 위에 있는 힘 있고 돈 많은 권력자들이 하는 것 - 흔히는 재벌이 못하는 일 - 이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얘기 할 때는 것부터가 시간 낭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정말 정치란 나의 생활 이외의 것인가? 고전 철학자들이 본 정치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 정치란 우리가 속하고 있는 공동사회 또는 우리의 사회적인 무대에 관한 공동의 관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공동사회에 대한 관여"가 "나의 생활에 일부"라는 주장이 관하여 당연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나는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적인 증거 같은 것은 없지만 그만큼 일리가 있다는 한 예로써, 우리가 요즘의 신문들을 보고 많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내 생활과 직접 상관이 없는 공동사회의 대한 일,에 대해 뒷대를 써주게 하는 무슨 알맹이가 있지 않을까 싶다.

흔히 정치는 야심 있는 사람한테만 상관이 있는 것 처럼 얘기 되지만 우리가 점심시간이 HUB에 모여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의 무슨 야심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지 않다. 심리학을 하는 이들은 무슨 특구불만 같은 것을 집어내어 우리의 뒷대를 설명하려 든 터지만 대부분의 심리학적 설명이 그렇듯이 우리가 뒷대는 내내 특구불만 운도 하는 것이지, 특구불만이란 현상 있는 것이요 또 어느 만큼의 특구불만이 정치에 관한 뒷대는 "무도, 한대는 밤은 없으니 그것도 그저 잊어 잊어 잊는 식이다.

투표를 현충가치(정치를 시장)로 바꾸어 계산하려는 요즘의 일부 정치 학자들은 같은 결론 정치는 잘못되면 장기적으로 그 피해가 우리의 물질적인 생활에 지대한 타격을 될 것이나 정치에 대한 관여는 곧 우리의 미래에 손익에 대한 관여라고 꼭 떨어지게 만 할려고도 하겠지만 이 땅에서 아주 영구하려고 하는 이들도 뒷대 내기는 대 입반이나 그것도 온통 옳은 얘기는 못된다.

그러나 된가가 따로 있지 않을까 싶다.

"야심"이라는 말은 이미 너무 낮차기 되어 버렸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 하는 "공동생활에 대한 관여"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관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심시간에 몰아서 얘기를 하고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가 얘기를 마치고 일어설 때는 늘 되풀이해서 "후회, 하소" "시간 낭비, 입만 들림"이 없지만 시간 낭비도 역설적으로 보자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요 좀더 근사하게 말해 인간의 조건이다.

우리가 중학교 공민시간이 배웠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비단 사람이 못여 사는 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사회적 유대 이관한 관여는 인간의 본성중에 하나라는 깊은 뜻도 포함하고 있다.

시간은 돈이니까 우리의 사회적 관여는 개인적 물질생활이 손해가 될까 걱정만, 내가 보기에 흥사 음악을 듣고 소설을 읽는 것이 우리의 개인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회적 유대 이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생활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즉 우리의 사회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정치학과)



## 학생회와 우표값

徐斗錚

이미 시효의 지났을 것이니 하는 이야기 하나. 어느 장관이 등부로 가는 길에 지어들이 들르게 되어 한국 학생들을 만나 봐야겠다는 전갈이었다. 좋은 일로 생각되어 이것을 학생회장이기 전했다. 그리하여 장관 일행이 도착한 그날 그를 세사람과 초대한 저녁식사를 한 후 학생회가 놓아 있을 장소가 있는 대학 안으로 걸어 들어가 있었다. 장관이 선 뒤에 스고 내가 글자 그대로 鞠躬如히 그 뒤를 수행했는데 아주 血色이 좋은 젊은 高級 官僚 한 사람과 二세 橫段로 간고 있었다. 내 자연 재미성이라고는 하나 없는 타이라 그런사한 함題라곤 생각조차 아니어서 애매한 두대리만 석 바퀴 움직이면서 그래도 前途의 자세만은 취하고 있었다. 역시 높은 교양과 남다른 藝術 熏染을 가진 듯한 이 高級 官吏가 나를 구원 할 양으로 말문을 열어 주어 무척 고맷았다. 고이가 내게 던진 첫번 센텐스는 文: 韓: 乎: 라는 질문형이었다. 曰 「이대총에서 한국 것도 가르친다지요?」 내가 말주변이 웬 말만 하였더라는 아주 멋진 대답으로 이 自遠方來한 存存의 高級 官吏를 즐겁게 대접하게 되고 이야기를 쓰는 지근까지 흥분하게 생각이나 해는 좋은것을 그렇지 못했다.

나는 기절해 버릴때부터 못난 노릇으로 잘 이바진 겸양심이 무척대고 발동해서 죄 없는 두 손을 마주 부비면서 담이라고 엉겁결에 가로되, 「글쎄요. 그렇습니다.」

遠來의 客이 肅然히 그러나 慨然히 묻되, 「美: 日: 사람이 한국 것을 배워서 무엇 하지요?」 — 이번에는 永歎的 질문형이다. 내 여전히 우유부단의 下愚라 목소리는 죽어 어음어음 不協和音으로 간신히 답하기를, 「글쎄 맞습니다.」

그날밤, 장관이 자기나라 학생들이라 만나기 되어 좋은 면담을 하였는데 이런 모임을 진행하는데 딱 익숙한 학생회장이 먼저 불려온 사람들을 장관 일행에게 現身시키는데 위이 말한 젊은 好同好學之士 열이 앉은 나를 가리켜 한국 것을 담당해 있는 韓人임을 탄로시키고 말았다. 좀 어색한 얼굴을 하더니 나중에 이 高層은 아주 잘 훈련된 호랑한 웃음을 천연히 쏘고하고 肅然히 曰,

「아차는 실례 하였습니다.」 나는 또 한번 허점지점 謙讓之表現으로, 「천만에...」

그다음날 아침 학생회장이 와서 보고하기를, 「학생회에 어제밤 선생님 열이 앉아 계시던 분이 장관님 이름으로 金一封을 주셨습니다. 우표값이 없어 근심하던 차에 아주 힘이 되겠습니다. 내 慨然히 承하

였다. 「잘 되셨오!」 (文博, 외성토대 교수)

## 제 호 현상 모집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본회보의 제호를 현상 모집합니다.

내용: 글자 수에 제한없이, 한글, 외성토, 우리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낼수 있는 것.

제출처: Smith Hall, Rm. 31. 우현 회장

마감: 1973년 1월 15일.

심사위원: 사제리 권위자 유한명

시상: 당선작 1편에 상금.

발표: 본보 차로 지상에.

# New comer의 辭

슬픔多謝

최재원

異域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고통은 사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대체로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색상 몇 개월에 불과한 처럼으로 일반적인 結論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고, 오히려 이제 문제의 보편적인 감정도 다른 리유하게 시작했다 할이 的確한 표현 일것 같다. 외국에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은 여러 종류의 모임에서 서상 實感하기도 했던 단계, 다음에는 이따 보직에 훨씬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선배들은 대하면서 美口的 개인주의나 韓口的 진전이 묘하게 混淆된 매너 앞에서 당황했던 氣分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變化의 과정을 차차 이해하게 되고 自身 속에서도 가끔 變遷하게 된다.

時間의 疾走와 變化의 速度를 느끼는 것은 그렇게 現實的 차원만도 아니어서, 예를 들면 「美口 가면 洋酒 먹고 洋담배 피우니 좋겠다」는 몇몇 친구의 낯익고 싱거운 투는 그대로 實現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장가를 뒤지고 방음한 tavern 들을 들리는 常識的 見習 과정도 곧 한계가 느껴진다. 아무튼 결국은 異邦사 일 수 밖에 없다는 先入見 때문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體質(?) 탓인지, 이따 생활에서 느낀 인상도 浮淺적이다. 美口은 批判的으로 受用하겠다는 애초의

문제 의식에서, 好奇心 오히려 비뚤한!) 視點에서 모든 것을 내려하지만, 다음 순간 우리사회와 비교하면서 슬픔은 맛보고 흔히 얘기되는 「우리 같은데 어떻게」 라는 自暁와 허탈감도 골잡 뒤따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애매한 ambivalence의 단계, 정지되지 않는 슬픔의 감정을 조금씩 해소하려지는 않는다. 너무도 쉽게 슬픔이라는 忍冬의 意味가 기실 별 의미가 아니라도 것도 깨달았고, 혹은 고면이나 혼란이 무가 구원의 端緒가 된다는데 「나이프」한 期待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러한 슬픔은 自己省察과 우가 지닌 공동의 문제를 탐구하는 시발점으로 밀어오는 것이다. 이런 때 받은 편지의 몇 거절 — 「위로로서 오히려 努力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자를 혼자 미국에 보낸 어느 軍사의 書翰.

「人間行事에 관심을 두어 편지 쓰러 노력하지 말고 勇氣를 기뻐여 學問에 전념하라」는 선배의 근엄한 忠告.

「남에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化하는 참라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 인간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은 할까 독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蕙海의 詩句를 인용한 한 文學徒의 슬픔 — 은 모두 무척 啓示的인 것이었다. 生活人으로서 安住하기 이전에, 어떤 唯一한 目的에 집중하기에 앞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彷徨과 슬픔은 한동안 계속된 것 같고 또 그래야만 한 것 같다. 슬픔多謝.



# 전공수레 ① 연극학

이 기 련

근년 여름 오래간만에 양복 한벌 사 입어야 할 일이 생겼다. 며칠을 두고 여러 상점을 들락 날락 함꼐 겨우 한벌 골라 들고 나오다가 문득 양복 한벌 고르는데 며칠을 고민(?)하는 주재이 일생을 걸쳐 몸 바쳐 종사 할 전공을 결정하는데 아무 미련없이 단 몇분 동안에 결심 해 버렸던 자신을 도리어 보고 그 커다란 모순이 새삼 놀란다.

66년 초봄, 3월 초순경이라고 기억된다. 어느 친구와 국립극장 부근 보 다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가 보니 시간을 잘 못 알아 세시간이나 일찍 나왔다. 그날 중천이 맑아 왔을수도 없고 해서 다방에서 나오다 보니 마침 국립극장에서 "학 외다리로 서다" 라는 河東의 작품이 상연되고 있었다. 시간도 보낼걸 으갓판에 국내 배우들의 발끝도 구경 할 결해서 들어가 보니 장내는 의외로 만원이 가자왔다. 극 중거리는 어느새 흙지구 김응원이 마누라를 잃고 혼자 적적히 지내다가 동네 과부 황정순을 마작 드는데, 작은 아들 박노식이 투정을 부리고 큰아들 김진수가 그사이를 무마 한다고 우왕좌왕 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야하고 배우들의 연기관 반사드록 영화 찍으라고 짐을 못 잔것 같은 어정쩡한 연기였다. 단 등장인 김응원이 황정순을 꾸는 장면과 박노식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장면은 꽤 실감이 났다.

성적표사이 향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배우들의 감정이 극중 인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지 않더라도 단 등장인이나 나을 도취시켜 주었던 그 연극은 나에게 꽤 큰 영향을 끼쳐 주었고 순간적으로 "나도 연극을 해보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그 후 슬롯 "딴사라" 라는 별명을 달고 다니며 연극을 감상하고 들락날락 하며 아직 그 순간적인 결심을 후회 해 본 일이 없고 앞으로 그렇기를 희망하나 그리 한가지 신기한 것은 사소한 일에는 모음이 절이도록 안달을 하면서도 큰일을 맞아서 놀랍도록 과감해지는 감정상의 모순이다. 연극을 제대로 할려면 인간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으나 제마음의 기복조차 제대로 파악리 못하고 있으면서 남의 감정까지 이해 할때고 나선다면 남의 웃음거리 부인 되리 않겠으나 그래도 앞으로 꽤나 많이 모음이 절여보고 순간적인 감정의 기복에 맞춰 울어보고 웃어보고 한다면 언젠가는 "딴사라" 라는 별명같이 나와 하게 될 날이 있지 않겠던지 .....



# 학생부인有感 ① 남편과 성적표

김 성 수

외국생활중에 제일 반가운 것은 역시 편지를 받는 일인것 같다. 그러나 이것서의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 우표가 붙은 편지는 점차 줄어들고, 미국 우표가 붙은 편지들이 많아지 마련이다. 그중에도 별로 반갑지 않은것은 전기, 가스, 전화 Bill 등이다. 물론 그 가나만 기대를 가지고 편지함을 뒤졌다. 남편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에서 온 단 한통의 편지밖에 없는데 공문서 애고 Bill도 아닌 작은 봉투인데 분명히 Mrs. 로 시작 하는 내앞으로 온 것이 아닌가? 남편이 쥐가 할때 저지 개봉을 보우할까 망서리더니 분명히 내앞으로 온 편지이니 안뜯개봉도 관찮겠다고 결판은 내리고 봉투를 뜯고 받았다.

영문 모은 내용의 영어를 내눈으로 읽어 들으니, 자세히 읽어보니 지난학기 남편의 성적표였다. 그리고 내 이름이 기록된 날씨는 보르자, 아니면 후견인 이라고 되었지 않을까? 별로 오래지 않은 몇년 전 까지만 해도 내 성적표가 나 아닌 내 부모님께 가던 것이 반씩 내가 후견인으로서 성적표를 받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항상 여기다만 생각하시는 권정 어머니께서 딸을 기쁘라고 고생한다면 남편에게 답을 하지도 생각과 함께 내라 위대한 새삼 깨닫게 되며 내 책임이 몇배로 무거워지는 중압감 같은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감정을 잊지 하기 어렵다. 어렵듯이 내가 F-2 VISA 는 가지고 있는 학생의 아내라는 것을 느껴 왔으나, 무슨 처럼 학생부인 이라는 특수 사회계층의 원인을 전신히 느껴보고 좀더 좋은 후견인 노릇을 하지 못한 내 자신의 부족함과 게으름이 부끄러워 진적이 없다. 정말 이제 부라는 남편 공부의 뒷바라지를 좀더 성의있게 해서 명심 상부한 후견인이 되어 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천자책 한권을 다 떠보면 덕은 해서 주고 다음 공부를 계속하도록 사기 양양을 해주는 통습이 있어 왔는데,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음에도 저녁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야단 이냐? 어서 고이가 좋아 하는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야지! (우재건 형의 부인)

### < 편집 후기 >

- ▼ 옛부터 자식 자랑 하는 사람을 가리켜 팔분출 중이 하나라고 해 왔다. 팔분출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자랑스럽게 내놓고 싶으나 도저히 용기가 없다. 즉 졸작이라는 말이다. 편집과 인쇄가 졸작이라는 말이 결코 내용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목고름 보내주신 서우수 박시님과 기고가 들에게 감사하며 더욱 예쁘고 성실하게 귀여운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 제목도 없는 회보이며 내용도 News letter 인의 학예지 인의 구별이 어렵다. 그러나 아무래도 좋다. 우선순위에 충실하며 소중 할수 있는 것이면 되겠다. 몇몇을 버드나 방향중으로 받고 그것도 방향이 틀니 바로 직전, 훗날이 오는 저녁, 무려 사장(?)의 Northlake 필자링 Harbin 으리 초대 받고 편을 내왔다.
- ▼ 전공 순례와 학생부인 有感, 고국에서 온 편지 난이 계속 빛을 받기 바라며 여러분의 후원을 기대한다. 아마후이 시간과 수상도 우리들의 대화의 가고 역할을 함께 하기 바라. 마치 않는다.

여러분의 오대양 에는  
우리입에 맞는 맛이 있습니다.



**FIVE SEAS**  
ORIENTAL and AMERICAN  
Groceries and Gifts

HYUN K. LEE  
543 N.E. NORTHGATE WAY  
SUITE C  
SEATTLE, WASH. 98125

S. C. HWANG  
(206) EM 3-6850

▼ 이 역사적인 첫호를 마감하는날 이외없이 큰비가 내리 세상을 본뜬 젓빛으로 휘감았다. 그리고 또 한해가 가는 것이다. 무엇이든 마감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흥분되다도 흥분한 것 인의 모른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마감하고, 그리고 그연장을 통해 인생을 또한 그렇게 마감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감들은 곧 "새로운 흥분" 과 사실상 동어 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감은 마음을 향한 흥분한 의미를 갖는다. (조미정, 윤희정, 우재건)